

大邱棄迷兒3명 市서 보호중死亡

大邱市에서 보호하고있는
기아 미아중 삼남자가 숨지
거나 도망쳐버린 사실이 보
사위의 大邱市국감에서 밝혀
졌다.

大邱시가 보자위에 제출한
국감자료에 따르면 89년들어
大邱市내에서 3백23명의 기
아·미아들이 발생, 이 가운데
3명이 숨지고 16%인 52명이
도망쳐 大邱시의 아동보호가
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
보호아동발생현황을 보면
기아 1백9명 미아 1백10명
가출아 52명 미혼도아동 43명
등 80명으로 이 가운데 1백6명이

시설주요소에 보호되고있으며
1백22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게
인도됐고 26명(89위탁보호) 14
명은 입양 52명은 도망, 3명
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.
성별로는 남자가 1백99명
여자 1백24명이었으며 연령
은 1세 미만 54명, 1세에서
3세 미만 43명, 3세에서 5세
미만 52명, 5세에서 7세 미만
40명, 7세에서 11세 미만 64명,
11세에서 18세 미만 70명이었다